



# 평화의 도구

제 175 호

2008년 3월

영적보조자 : 이규성 바오로 sfo 714-537-1974  
 회 장 : 리병재 힐라리오 sfo 714-879-8679  
 부회장 : 오수원 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근숙 율리아 sfo 714-875-1760  
 회 계 : 박용원 야고보 sfo 562-924-5840  
 양 성 : 이세홍 바오로 sfo 562-860-6930  
 사도직 : 이용석 안토니오 sfo 714-739-4226

◆ 월례회 : 매월 3째 일요일 오후 12시30분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 형제회 소식

### ▶ 각자의 컵은 각자 준비하기

환경보호를 위하여 일회용 컵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자신의 컵은 각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8차 북남미 봉사자 연수회

일시: 2008년 7월31일-8월3일  
 3박 4일 (목요일-일요일)  
 장소: Serra Retreat Center  
 3041 Serra Rd., Malibu, CA 90265  
 주관: LA형제회  
 경비: 일인당 \$280.00  
 신청 문의 및 접수: 평의회원  
**\*\*신청 마감은 4월 20일입니다.**

### ▶ 새로오신분 2월17일

하남순 마리아

▶ 오늘 (3월16일) 은 오렌지카운티 형제회 총회 및 제6대 평의회원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수고하여 주신 제5대 평의회원들께 감사 드리며 주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기를 빕니다

### 축하합니다

새로 선출된 제6대 평의회원들을 축하하며 성령의 힘으로 활력이 넘치고 작은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빌며, 새 평의회원들과 오렌지카운티 형제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3월 식사준비 제3구역

김영숙 데레사 김화성 바오로  
 이정숙 마가렛 이현일 어거스틴  
 김재연 안젤라 음광인 아오스당  
 김숙령 마리아 아수연 안나  
 안경신 수잔

### ▶ 4월은 제 4구역



### HAPPY BIRTHDAY!

생일을 축하합니다

3월04일 김영숙 데레사  
 3월06일 배연동 안나  
 3월10일 흥병숙 율리안나  
 3월10일 김숙령 마리아  
 3월11일 강승자 루시아  
 3월16일 오수원 바오로  
 3월17일 이명순 글라라  
 3월19일 안경신 수잔  
 3월23일 송정숙 데레사  
 3월23일 이준목 바오로  
 3월27일 권세경 카타리나

### OC형제회 15년사 출판 기념식 및 설립 15주년 기념미사

08년 4월 20일(일) 3째 일요일  
 성토마스 성당  
 12:30-1:30 점심 식사, 리셉션  
 1:40-2:45 15년사 출판 기념식  
 3:00-4:00 설립15주년 기념미사  
 (주일미사로 봉헌합니다.)

## 15주년사 편찬 위원회 마무리 모임



오렌지카운티 형제회 15주년 기념 편찬 위원회는 지난 2월1일 금요일 저녁 6시에 김창순 데레사 자매 자택에서 마무리 모임을 갖고 최종 확인 작업에 들어 갔다. 편찬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승호 바오로 형제를 비롯하여 이규성 바오로, 리병재 힐라리오, 김

영배 요한, 이현일 어거스틴, 이세홍 바오로, 박용원 야고보, 김창순 데레사, 오수원 바오로, 유근숙 율리아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 및 발자취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역대 평의회원들로 구성하였다. 2006년 2월12일에 첫 모임을 가진 이후 2년간 매월 5-6시간 정도 모임을 가져 왔으며, 형제회 연혁을 비롯하여 사진 정리, 행사 및 형제회 전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마무리 작

업을 했다. 2008년 4월25일이 형제회 설립 15주년 되는 기념일이지만 며칠 앞당겨서 4월20일(일) 월례회날에 기념식을 할 예정이며 이날은 많은 외부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김재섭 마리비안네 OFM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실 예정이며 이날 형제회 15년사 책자를 배부할 예정으로 있어서 형제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 우연이 아닌 나의 만남

프란치스코 3회와-현재는 재속 프란치스코회로 부르지만-나의 만남은 노랫말처럼 우연이 아니었고, 주님의 부르심과 부모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내가 있을 리 없었겠지요.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이북에서 월남한 난민들이십니다. 모든 걸 버리고 남으로 내려와 온갖 고생을 다하시면서 다행히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주님을 모시기를 삶의 목표로 여기셨지요. 그 덕에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난민들이 다 그렇듯이 부모님께서서는 서울, 부산, 파주 등 전국 각지를 다니시다 송탄에 정착하셨습니다. 제가 여섯 살이었을 때 부산 용두산 언덕에서 본 큰 불이 기억납니다. 또 송탄에서도 동네의 반이 다 타버린 큰 불이 났던 일을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성당이 없어서 오리도 넘는 새벽 길을 걸어서 서정리 성당으로 미사 참례를 하러 가던 기억도 납니다. 어린 제가 얼마나 신앙이 깊었겠는가마는 그래도 찬 마루바닥에 꿇어앉아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 했는지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간절함은 잊혀지지 않네요.

이런 저에게 프란치스코회 3회를 만나게 해준 건 사촌 수녀님 친구인 비리시다 언니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 지난 1962년이었지요. 그 때는 시외버스를 타고 평택까지 가야 했는데 유달리 멀리가 심한 저에게 그 어지러움을 씻겨준 너무나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방지거 3회라고 하였는데 어린 저를 '띠회원'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어린 저는 신나서 기도했고 시키는 대로 따라 하며 한편 우쭐대기도 하였습니다. 4남 3녀인 우리 식구중에서도 내가 유일한 회원이었으니까요.

부산에서 자랄 땐 왈가닥으로 불렸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다 꼬집어 주어 울음판으로 만들곤 했거든요. '도라무통'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통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아 땅꼬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활달했던 내가 차츰 움추려 들고 뒤로 발을 빼게 되었습니다. 나를 격려해 주던 비리시다 언니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집안에서는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는 준비를 하느라 진학 준비도 못했으니 자연히 3회와는 멀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향학열이 남다른 부모님 덕에 수원여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통근 열차를 타고 다녀야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무슨 문제나 싶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다른 동네, 도시 아이, 크고 예쁜 애들에게 샘이 났어요. 어렸을 때처럼 활달하게 나를 내세우지 못했지요. 바람에 구르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하는 사춘기 시절을 우울한 그늘 아래 지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을 나오면 나아지려나 했지만 당시 내겐 모든 길이 다 절벽이고 모든 문이 다 닫혀 있었지요. 수녀원으로 들어가려고도 했지만 그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사는 송탄에도 성당이 세워졌고 아버님께서서는 평택 형제회에서 분가하여 송탄 형제회를 만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애' 같은 홍보 영화를 돌리고 책자를 보기도 하면서 막연하나마 어떤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치릴로 형제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송탄형제회가 설립되었고 아버님께서 초대 회장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형제회 활동의 일환으로 산청 나환자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경치 좋다는 데 구경이나 가자는 생각으로 영겁결에 따라갔지요. 그 곳에서 저는 진정 주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나는 속마음으로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열등감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했었지요. 그러나 내가 산청에서 만난 나환자들은 나보다 더 어렵고 괴로운 환경에서도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부끄럽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과 부모님의 사랑 아래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비로소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광명의 빛을 만난 듯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쁨의 찬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987년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오고 부모님도 따라 오셨기 때문에 망설임은 없었지요. 하지만 막상 미국에 오자 차없이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영어 문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중고차를 얻어 움직이게 되었지만 막상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문을 두드리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일단 제 앞가림을 위해 한의과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한의원을 운영하시던 아버님의 도움으로 비교적 손쉽게 면허를 얻게 되었지만 저에게 더 많은 힘이 되었던 것은 아버님의 오랜 일기장 같은 환자 기록과 처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님이 직접 만나고 처방하고 진료하신 많은 의학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츰 미국생활에 적응하고 나서도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다시 들어가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망설임을 떨겨주신 분은 송탄에서 수련장이셨던 치릴로 형제님이었습니다. 제가 서신을 통해 저의 생활을 알려드렸을 때 그분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한국땅에서 주님과 맺은 약속을 미국이라고 저버려야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프란치스코의 매듭을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이런 저의 갈등과 번뇌조차 사랑으로 감싸주신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보살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는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닫고 사부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다짐으로 삼고자해서입니다.

모든 형제회원님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곽인에 막달레나



## 기도는 문을 두드리고 단식은 청하며 자선은 받습니다

형제들이여, 믿음을 견고히 세워 주고 신심을 변함없이 유지해 주며 덕행을 지속시켜 주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고 단식은 청하며 자선은 받습니다. 기도, 단식 그리고 자선, 이 세 가지는 한 묶음이고 서로서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기도의 영혼이고 자선은 단식의 생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서는 제대로 작용할 수 없으므로 분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고 다른 두 가지는 갖고 있지 않다면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이는 단식도 해야 하며 단식하는 이는 역시 자선도 베풀어야 합니다. 자기가 간청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간청하는 사람의 청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청에 자기 귀를 막지 않는 사람을 하느님께서서는 잘 들어주십니다.

단식하는 사람은 단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서 자신의 배고픔을 알아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는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선을 바라는 사람은 먼저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빌려 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거절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영치 없는 청원자입니다.

사람들이여,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러분이 받고 싶어 하는 자선의 척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빨리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빠르기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므로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청원이 되도록 합시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유일한 청원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멸함으로 잃어버린 것을 단식함으로 찾도록 합시다. 우리 영혼을 단식으로 희생 제물로 만들어서 하느님께 바칩시다. 예언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느님께 이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습니다. “하느님, 나의 제사는 통회의 정신, 하느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 아니 보시나이디.”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단식의 제물을 하느님께 바쳐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시는 순수한 제물과 거룩한 제사와 산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댈 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봉헌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시도록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단식은 자선의 물을 받지 않으면 싹을 내지 못하고, 자선이 메마를 때 단식도 가뭄을 겪게 됩니다. 자선과 단식의 관계는 비와 땅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닦고 육신을 정결히 하며 악을 뽑아 내고 덕행을 심는다 할지라도 자선이라는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단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단식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자선이 단식할 때 여러분 마음의 들판은 단식합니다. 여러분이 자선으로 씨를 뿌릴 때 거기서 거두는 열매로 공간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낌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누어 줌으로써 거두어 들이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애금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 베드로 크리스로고 주교의 강론에서—

## 아씨시의 복자 에지디오

기념일: 4월 23일



성 프란치스코의 첫 동료들 중의 하나인 복자 에지디오는 단순하고 착한 생활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는 신심에 불타 여러 신앙의 순례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여정에서 그는 들판의 농부들에게 품을 팔아 일용할 양식을 얻었으며 생애 후반기를 그는 페루시아에서 엄격한 고신극기와 관상에 전념하며 보냈습니다.

## 성 프란치스코 영성

### 사랑의 정신과 애정어린 동정심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이신 가난한 프란치스코는 스스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같아지려 하였고, 당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몹시 슬퍼하였다. 그것은 헛된 영광을 탐해서가 아니라 다만 동정심에서였다. 그는 실로 볼품없고 거친 투니카 한 벌로 만족하였지만, 그 한 벌도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 가지기를 몹시도 자주 염원하였다.

그러나 이 진정 풍요로운 가난한 사람은 크나큰 애정에 이끌려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 하였고, 몹시 추운 때에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외투나 모피를 청하곤 하였다. 지극히 복되신 사부님은 당신이 청할 때보다 더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이 내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 “이것을 다시 돌려받으리라 기대하지 않으실 것으로 알고 받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입을 것을 첫 번째로 만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입혔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든가, 피조물이 누구에게서 저주를 듣는 것을 보면 그는 몹시 괴로워하였다.

한 번은 일이 벌어졌다. 어떤 형제가 동양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욕설을 했던 것이다 : “여보시오, 부자이면서 가난한 척하지 마시오!”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이신 프란치스코가 이 말을 듣고는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다. 이에 그는 그 말을 한 형제를 호되게 꾸짖고 그 가난한 사람 앞에서 옷을 벗고 발에 입을 맞추어 용서를 청하라고 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다. “가난한 사람에게 저주를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높은 상징을 그들이 달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난한 사람이 나뭇짐이나 다른 짐꾸러미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 자기 어깨도 약골이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어깨를 자주 내밀었다.

— 헬라노 전기 제1부 28장 —



## 신심은 모든 경우와 직업에 적합하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를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을 초목에게 명하셨다. 이와 같이 하느님은 또한 그 교회의 생활한 초목인 신자들에게 그 처지와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 각각 신심의 열매를 맺기를 명하신다. 귀족과 직공, 왕족과 노복, 과부와 주부, 소녀들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신심은 각각 달라야 한다. 또 한층 이것을 개인의 능력, 일, 직무에 맞추어야 한다. 주교가 사르틀 수도회의 수사처럼 관상적 독수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가정을 가진 자들이 카푸친회 수사들처럼 금전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직공이 수도자처럼 종일 성당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는 수사가 주교처럼 언제나 타인을 위해 분주히 돌아다닌다면 이런 신심은 참으로 우습고 질서를 뒤집으며 또한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착오는 극히 많다. 따라서 세속은 참된 신심과 그릇된 신심을 구별치 않고 또는 구별하려고도 않으며 신심을 배척하고 이를 비난한다. 그러나 이런 비난과 배척은 위에 말한 그릇된 신심에 한해서만 말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신심은 아무 것도 손상치 않고 오히려 만사를 완성시킨다. 자기의 정당한 직무를 거스르는 자의 신심은 확실히 그릇된 신심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꿀벌은 꿀을 마실 때 조금도 꽃을 상하지 않게 하며 꽃은 이전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잃지 않는다고 한다. 참된 신심은 이보다 더 어떠한 직무나 처지도 손상치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를 아름답게 꾸민다.

— 신심생활 입문중에서 발췌 —